

“바울의 고별설교”

사도행전 20:17-24

오늘 성경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도중, 밀레도에 도착하였다가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 고별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으로 인해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즉,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삶의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죽음 이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신앙적 점검이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신앙인들이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행 20:22-23)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성령에 매여' 간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행 2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비록 그는 그의 고백과 같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였”(22 절)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고난이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 여정이 얼마나 험란한 여정일 것이라는 것을 있었지만, 그는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나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 3:1-2)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만히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돌이켜 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그 '때'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단순히 시간적 개념을 뛰어 넘어,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체험을 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일 수 있겠지만, 그 경험을 한 사람에게 그 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주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매일이 카이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한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 의미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매 순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행 20:28)

자신과 성도들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자신의 품행을 성찰하며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 4:6)

우리는 보통 꼭 필요하지 않은데, 쓸데없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참 싱겁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말을 할 때, 싱거운 사람처럼 이야기 저 얘기를 두서없이 말하지 말고, 마치 소금으로 간을 한 것처럼 맛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모두 적절하게 간이 된 것과 같이 맛있게 해야 합니다.

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적인 청결도 중요합니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전 9:8)

성도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외적으로 단정하게 하는 것이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꾸미라는 것은 아니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와 태도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베푸는 삶’에 대해 권면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 20:35)

약한 사람을 돕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을 언급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즐겁게 만드는 참 기쁨은 ‘나누고 베풀 때’ 있습니다. 나누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잔뜩 가두어 놓는 ‘저수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에게서 그 은혜의 복이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나눌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별설교를 통해,

-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며 매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 진정한 복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오늘 말씀과 같이 의미있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싱겁지 않고 소금으로 간을 한 것과 같이 맛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 중 사도행전 20:24 을 함께 큰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만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2.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몇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가장 와닿고 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이나 결단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